

생존위한 투쟁 원유가 항쟁, 매번 겪을 수 없다

안 희 경
농수축산신문 기자

2000년 들어 총 세 번의 원유가 인상이 있었다. 원유가협상 때마다 생산자단체 집행부는 사발을 했고 단식투쟁이 이어졌으며 전국의 낙농가들은 여의도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원유값 인상으로 우유값이 들쭉날쭉할 때마다 대규모 납유거부가 거론됐고 이후 제품가격에 반영돼 우유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여지없이 소비부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원유가 인상이 단행됐다. 업체와 정부는 원유값 인상 이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다. 농가들은 거리에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갔다. 원유가 항쟁으로 불린 이번 원유가 협상. 생존을 위한 그들의 투쟁과정과 원유가 협상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해부해 본다.

4년마다 진통 겪어

우유만큼 가격인상이 요란한 상품이 또 있을까. 지루한 소모전은 왜 반드시 3~4년 주기로 되풀이되어야 하는 걸까.

2008년 6월 17일 전국 낙농인 7,000여명이 여의도로 몰려왔다. 오르는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원유가 인상이었다. 생산자단체 집행부는 단식을 감행했고 7,000여 낙농가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원유가 인상을 주장했다. 당시 원유가 협상과 관련한 낙농진흥회의 소위원회는 14차 이상 진행됐고 12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2008년 7월 19일 새벽 3시 30분 극적인 타결로 120원 올린 20.54%의 인상안에 수요자와 생산자가 타결을 했고 최악의 사태인 납유거부를 막았다는 안도감이 협상장에 감돌았다. 이후 우유 소비자가격은 1ℓ 기준 1,900원대에서 2,200원대로 15% 가량 상승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원유가 협상시에도 큰 진통이 있었다. 역시 여의도에서 전국낙농인 대회를 개최했고 집행부를 비롯한 낙농가들이 장외투쟁에 나섰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원유가 13%를 인상했고 이후 소비자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2004년에서 지금까지 두차례의 원유가 협상이 있었고 각각 13%, 20%의 가격 인상을 했다. 그렇다면 현재 낙농가들의 사정은 어떨까. 2004년 10만호에 육박하던 낙농가들은 6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6만4,000여호밖에 남지 않았다. 규모화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전체 젖소 마릿수는 50여만마리에서 43만여마리로 14% 가량 감소했다.

낙농가들은 도시화와 높은 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낙농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농가들도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협상은 멀기만 하다. 올해의 원유가협상에는 최악의 사태인 납유거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제역과 이상기온으로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유부족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원유값을 올릴 때마다 단식에 농성에 대규모 집회에 할 짓이 아니다”며, “혹독한 진통으로 원유값을 올리다보니 낙농가도 유업체도 진이 빠진다”고 말했다.

수요자와 생산자간 심리적 부담외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번 원유값을 올릴 때마다 10% 내외의 우유소비 부진이 이어졌다”며 “원유가협상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다른 재화에 비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1년, 최악의 사태 납유거부까지

50여일간 진행된 이번 원유가협상은 총 13차례의 소위원회와 6번의 실무자 회의, 서면결의를 포함한 4번의 이사회 등 지루하게 진행됐다. 이 마라톤 협의 속에서 낙농가들은 집유거부, 납유거부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유업체의 일부 공장은 생산중단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8차 소위원회가 진행되던 지난 8월 3일 전국 낙농가들은 집유거부를 단행했다. 8월 3일 집유거부는 농가들의 참여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후 회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양측은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고 결국 10일 전국단위의 납유거부가 실시됐다. 전국 5,200톤 원유생산량 중 이날 집유된 양은 비공식적인 집계로 700여톤. 전체 농가의 85% 가량이 납유거부에 동참했으며 지역별로 원유에 항생제를 타거나 색소를 타서 극적효과를 높이는 등 강경투쟁이 이어졌다. 이날 납유거부한 원유량을 단순 유대로 환산하면 대략 40억원. 일부 유업체의 생산라인도 멈췄다. 유업체측에 따르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라인을 모두 새롭게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이미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에게서 피해가 발생한 것.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다. 몇몇 유업체는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돌리는 등 우유대란을 예고했고 10일은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 향후 소비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납유거부와 일련의 사태로 향후 우유소비율이 상당부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유업체의 관계자는 “2004년, 2008년 원유값 인상시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가 떨어졌다가 소비회복을 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이 몹시 뜨겁고 대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소비 회복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생산자, 유업체와 개별협상, 진흥회 부정?

생산자는 13차 소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고 각 유업체와 개별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렇게 되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는 기능론에 대한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낙농진흥회가 집유를 통해 계약물량을 유업체에 조달하고 있으나 생산자와 유업체간 개별협상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진흥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8월 12일 새벽 4시 서울우유는 리터당 160원의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낙농진흥회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8월 1일부터 소급적용기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집유를 시작했다. 2004년과 2008년 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의 가격협상 전 먼저 인상가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처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농진흥회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우유가 원유협상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며 “가격 결정을 협의하는 낙농진흥회의 소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농진흥회가 기능을 강화하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값 인상, 무엇이 달라질까.

원유값 인상이 57일의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리터당 130원 인상에 최종합의했다. 14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생산자, 유업체 모두 정부 중재자인 리터당 130원 인상과 체세포수 관련제도 개선은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인상안 최종합의로 낙농진흥회 농가들은 리터당 704원이던 원유기본가격을 130원 오른 834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됐다. 여기에 유지방, 체세포, 세균수 등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대 1,015.28원의 농가수취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로 원유기본가격 뿐 아니라 체세포수 2등급의 인센티브도 상향조정됐다. 기존에 체세포수 등급기준은 차이가 없지만 2등급 인센티브를 23.69

원에서 47원으로 상향조정해 체세포 등차 가격을 완화기로 한 것. 체세포수 등급 기준별 농가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이 51.2%, 2등급이 33.9%로 두 등급 농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체세포 등차 가격 완화로 평균 8원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농가들을 기준으로 정상유대분만 감안하면 지난해 평균 수취 가격은 841.5원으로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인 130원과 체세포수 등급 완화 인상분을 더하면 농가들의 평균 수취가격은 대략 979.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원유가 협상으로 체세포수 2등급의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농가에서 평균 8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기존에 배 이상 차이가 나던 체세포수 1, 2등급의 차가 4원 대로 대폭 줄면서 무리한 등급유지를 위한 조기도태도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측은 체세포수 등차 가격 완화로 체세포수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도태되던 젖소들을 더 오래 기를 수 있게 돼 가축비를 줄이고 마리당 산유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수급기획 담당자는 “젖소는 송아지 생산 3회 이후 우수생산량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산차수가 늘어날수록 체세포수가 일정수준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체세포 등급기준이 높고 가격차이가 커서 산유량이 올라가는 3산 이후 도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체세포수 등차가격 완화는 궁극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 조기 해소와 낙농가 경영안정 및 유업체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세포수 등급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개/㎡)	20만 미만	20~35만	35~50만	50~75만	75만 초과
인센티브(원/ℓ)	51.50원	47원 (기존 23.69원)	3.09원	-25.75원	국제가격
출현비율	51.2%	33.9%	10.8%	3.6%	0.5%

연동제, 과연 될까.

원유값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2008년 원유가협상 당시 협상 쟁점에는 원유가격인상 외에도 사료가격 연동제가 있었다. 사료가이 오를 때마다 이를 반영해 원유값을 인상하자는 연동제는 설득력을 얻었고 수요자와 생산자간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생산비조사와 기준생산비가 걸림돌이 되고 결국 원유값이 인상되면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관건은 생산비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차이다. 비교생산비에서는 사료생산비가 쟁점이고 기준생산비에서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둘 것인가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이미 71원의 격차를 벌여놨다. 연동제는 생산비중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이 있으면 가격을 올리는 간단한 법칙이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생산비 자체에 수요자와 생산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생산비 조사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연동제 도입을 통해 매년 생산비에서 생산요소의 물가지수를 곱해 인상이나 인하요인을 결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생산비에 착유내용 연수나 자가노동 평가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사가 선행돼 농가도 유업체도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면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원유값 협상에 따른 낙농가와 소비자 피해 부분이었다. 낙농가들이 현실적인 원유값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책으로 내 놓은 납유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이 우유를 원활하게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유가격을 매년 조정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인상이 완료된 후 농촌경제연구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생산자, 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추정생산비인 리터당 745원에 대해 검증하고 23개 원유생산비 비목별로 원유가격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낙농진흥회는 이와 더불어 매년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서 과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㉞